

靈 寶

1991~1992

全州文化院

(文化部 登録番号 第ㄱ-962号 登録日字 1981. 8. 10 郵便番号 560-020 隔月発行)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螢 嶺

58

1991年 6月

企劃特輯：千人義塚聖域化 · 이렇게 생각한다.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5절>

편 집 후 기

◇...웅치대첩의 발굴자료를 도민에게 들어 내놓자마자 회오리바람처럼 거세게 일어난 반응에 경건해진다.

본지 편집인 장명수교수의 웅고집으로 이뤄진 웅치대첩 자료발굴은 전북의 홀로서기 뿌리도 성장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김희원국장과 육완태부장의 열의에 감사를 드린다.

이제 웅치대첩지와 천인의총의 성역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전북·전북인의 새로운 긍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기획특집으로 전주·전주인의 모습도 엮었다. 귀중한 옥고를 보내 주신 필자 제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린다.

노령은 향토의 문화 인정 정보를 전달하는 교량으로 성장해 나갈것을 다짐한다.

노령의 발간부수 2천부를 완전 품귀로 몰아준 웅치대첩의 발굴 특집과 같은 소재를 계속 찾기 위해 그동안 특집제목을 소개했다. 매권의 성원을 바란다

〈宋〉

蘆 嶺

第 57 號

91年 6月 非賣品

印刷 · 1991年 5月30日

發行 · 1991年 6月10日

發行人 金 光

鎬

編輯人 張 明

洙

主 幹 宋 榮

相

編 輯 柳 章

友

印 刷 咸

清

公報處登錄 마-96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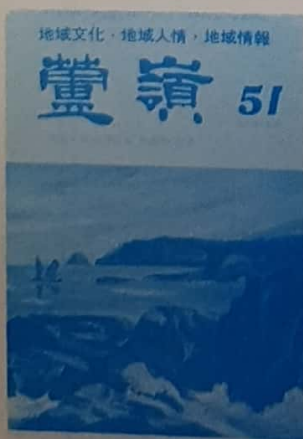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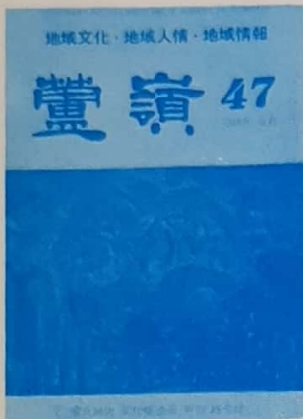
登錄日 1981年 8月10日

發 行 社團法人 全州文化院

560-020 全州市 完山區 慶園洞 1街 58의 4 ☎ 88-7500

印 刷 鮮明出版社 ☎ 84-0030, 84-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論理委員會의 雜誌論理 實踐要綱을 준수합니다.



企劃特輯① 千人義塚 聖域化· 이렇게 생각한다

- | | | |
|----|-------|------------------------|
| 8 | · 張明洙 | 千人義塚 보존과 사당건립 |
| 11 | · 楊萬鼎 | 愛國의 산 教育場化로 |
| 16 | · 金宗煥 | 全北의 홀로서기 起爆劑로 |
| 21 | · 安鴻燁 | 全北人의 精神史의 象徵 |
| 26 | · 梁炳龜 | 國民모두가 직접 보는 民族道場으로 |
| 31 | · 安 鎰 | 殺身護國의 聖地 |
| 35 | · 金永培 | 舉國적으로 聖域化 되어야 |
| 40 | · 李吉培 | 義兵의 孤魂들 九天에서 헤메여야만 하는가 |
| 47 | · 金煥得 | 그 무덤 어찌 방치한단 말인가 |
| 51 | · 손석배 | 집안 어른 대대로 口傳된 사실 |
| 56 | · 黃奎淵 | 당연히 聖域化 追慕해야 |
| 60 | · 金규원 | 全北人의 魂을 깨우자 |
| 65 | · 柳章友 | 웅치대첩 자료발굴 노령의 보람 |

- | | | |
|-----|----------|----------------------------|
| 70 | · 이방우 | 畫家가 가본 내고장 山河 / 風穴冷泉 |
| 137 | · 金榮錫 | 生活과 宗教 / 절망이 아닌 선택을 위한 눈감음 |
| 134 | · 李鎬培 | 李鎬培 칼럼 / 全州의 맛 全州人의 멋 |
| 136 | · 柳豐淵 | 좋은 글귀 풀이 / 弧假虎威 |
| 137 | · 崔昌烈 | 우리말 우리글 / 받진고리 |
| 140 | · 全鍾倫 | 故鄉을 생각한다 / 竹島의 병풍바위가 그림다 |
| 143 | · 李斗載 | 보훈의 달을 맞아 / 報勳制度에 대한 小考 |
| 148 | · 金명국 | 蘆嶺 新人 詩壇 / 부러진 칼 外2 |
| 152 | · 정리·曹圭華 | 續「나의 文學60年」③2 / 詩人 金海剛 日記抄 |

企劃特輯② 全州·全州人

전주난장	李基班 · 72
辛夕汀-26 그리움의 위성	이병훈 · 74
多佳의 詩	崔宗奎 · 76
全州禮讚	허호석 · 78
위봉산성	趙紀浩 · 80
南門에 기대여	朱奉求 · 82
李三晩	李東熙 · 84
湖南第一門 까치	이성미 · 86
나의 고장 全州	柳基洙 · 88
개인 對 개인만이 다정한 全州人	文致相 · 92
全羅監營地 全州사람	주재만 · 97
마한, 후백제의 맥을 이은 고도 전주	丁德龍 · 103
全州·全州人	김순영 · 107
우리동네	禹漢鎔 · 111
校洞餘情	장태운 · 116
전주는 우리의 영원한 삶터	朴永喜 · 119
영원한 우리 한국인의 고향	김여울 · 123
陳東奎 詩人을 찾아서	李東熙 · 127
全州風物記①⑨ / 全州川邊	宋榮相 · 158
全州名所讚⑧ / 天惠의 勝景 僧巖山②	金永善 · 164
편집후기	169



“全州의 맛 全州人의 멋”

全州를 멋과 맛의 고장이라 일컬음은 그 역사가 오래여서 지금은 차라리 고유명사의 느낌이다. 그래서 또 全州人은 멋쟁이로 맛난이로 조금은 유달리 뵈어지고 싶어하고 스스로 자랑이다.

全州의 멋을 얘기 하려면 우선 「各宅書畫」 전통을 꼽아야 한다. 글씨를 좋아하고 그림을 사랑하기에 방마다 족자와 액자를 걸어 감상하는 아취를 표현함이다.. 藝鄉이라 애칭함이 여기에 연유한다. 「每戶樹花」라는 것도 全州人의 멋중의 하나다. 집마다 한 두그루라도 수목으로 그늘하고 화초를 가꾸 즐겼으니 綠都의 별칭이 이에서 생겼었다.

墨鸞화백이 全州로 피난 와서 대포값과 식량값으로 그려 주었더라는 많은 그림들을 6.25중에도 그를 웃으며 수용할 줄 알았던 시민의 멋과 아량이 지금도 자랑이다.

골목 안 구멍가게와 주막에까지 걸려 있는 한 두폭의 서화는 끼니는 굶어도 예술을 멀리할 수 없다는 全州人의 긍지다.

全州의 멋중에 또 한가지는 「소리」요 「춤」이다. 西海湖南의 음악을 대표하는 소리의 상징이 판소리요, 그를 집대성한 申在孝는 高敞人인데 연주의 본 마당이 全州였으니 그 멋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판소리는 서민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를 수준 높은 해학으로 버무리고 따가운 풍자로 뒤어서 소리에 싣고 가락으로 나

르는 삶의 숨결이다. 그것은 한을 삭이어 노래로 풀고 흥을 돋구어 정으로 띄우는 민중의 내음이다.

당연히 노래들은 춤과 짝궁하여 살풀이도 곁들였다. 춤인지 멈춤인지 숨 죽이게 하더니 조는 듯 잔잔한 물결이다가 격랑으로 감아 돌며 전율로 온 몸을 죄는 살풀이 춤사위는 南道人の 말 없는 웅변, 또는 간절한 소원을 바람인 듯 여울인 듯 몸짓에 담고 울동 위로 태우며 쌓아 보는 심신의 기도.

그 멋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全州의 맛이 가지는 참뜻을 또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全州의 맛은 저들 글, 그림, 꽃, 나무에의 사랑과 노래, 춤으로 몸 배인 멋들로 빚고 비비고 삭여서 만들어 낸 향기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냥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삼키는 여물이 아니라 예술과 정감과 기도가 함께하여 이뤄내는 승화물인 것이다.

全州비빔밥의 참 맛은 이를 터득하고서 비로소 혀 끝에 꿀로 사탕으로 감겨 들고 녹아드는 생명줄이 되는 것이다.

사실 全州의 맛으로 대표되는 비빔밥은 하나의 종합예술품이기도 하다. 만든지의 애정과 정성이 황토묵, 고추색에 나물 많이 섞여내는 고운 색깔들로 그림을 그린다.

한과 원을 젓갈로 녹이고 김치로 삭여서 펼치는 판소리 한마당이 솟갈 위에 춤을 춘다. 간·된·고추로, 장은 장대로, 무·배추·꼬들배기로, 김치는 김치대로, 향토·청포·모밀로 묵은 묵대로, 나물에 짬아치에 동치미 젓갈들이 모두들 그런 멋으로 맛을 일궈 全州를 꾸민다. 全州人을 살 찌운다.

누구라 全州人을 맛 있는 멋쟁이라 안하랴. 스스로 그를 깨닫아 넓히고 키우며 자부하고 자궁하는 늠름함의 모자람이 한스러울 뿐——.

〈全州大 敎授〉